

대학에 처음 와 느낀 점은 전공도서의 한 문장도 쉽게 읽기 힘들다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전공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도서이다 보니 관련지식이 없고 책과 친하지도 않았던 나는 공부를 하려 책을 필때마다 한숨이 나왔었다. 이를 통해 읽고자 하는 글이 읽히지 않는 답답함을 느꼈고 최소한 내가 쓴 글은 남들이 봤을 때 읽기 쉬웠으면 했다. 그래서 글을 쓸 때마다 항상 몇 번씩 읽어보았다. 내가 썼어도 다시 읽어보면 말이 안 되거나 읽기 불편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때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어난 필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기에 항상 글쓰기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교양수업 교수님께서 강의를 추천해 주셨고 약간의 기대와 함께 특강을 신청했다. 글말특강에서 강사님은 글의 시작인 문장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주어와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 등과 같은 개념들을 예시와 함께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다. 그 중에는 내가 궁금했던 것들, 또는 내가 자주 사용하지만 틀렸다고 지적하시는 표현 등이 있어서 나의 글쓰기 습관을 돌아보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내 글에는 군더더기가 많다고 느꼈는데 특강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까지도 제시해주었기 때문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문장이 모이면 문단이 되고 문단이 모여 장문의 글이 된다. 좋은 글은 문장도 문장이지만 문단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독자로 하여금 더 효과적으로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게 하고 읽고 싶게 만든다. 그래서인지 교양이나 전공수업에서 레포트를 제출할 때면 문단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 이런 고민에 답하듯 글말특강에서는 문단의 정의와 기본원칙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었다. 문단에 대한 다양한 학자의 의견들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글쓰기에는 내가 모르는 여러 방법이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몇가지의 글쓰기 형태만이 정답은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글을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설명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문단을 나누어 써보고 읽어보며 어느정도 나만의 글쓰기 틀을 만들어 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유명한 작가들의 책을 읽어보며 그들의 구성을 익히고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카톡을 보낼 때도 맞춤법에 신경 쓰는 사람들 중 하나인 나는 글말특강 4회차의 마지막 강의가 유독 재밌었다. 특히 글쓰기 실력과 맞춤법에 대한 연구를 소개해주신 것이 흥미로웠다. 강사님의 개인적 견해로 이 둘은 직선적 관계에 있지 않고 어문규정을 공부하는 것은 개개인의 수준과 관심사에 따라 나누어져야 된다고 주장하셨는데 위 견해에 어느정도 동의는 하지만 맞춤법이 틀리면 훌륭한 글이라도 글에 대한 신뢰도와 집중이 깨지는 나로서는 글을 쓰는 사람들은 맞춤법을 틀리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이 외에도 맞춤법이 틀린 예를 가져와 설명해주시고 맞춤법 검사기나 맞춤법 관련된 책들도 몇 권 소개해 주셔서 맞춤법을 확인할 때 사용해보려고 메모해 두었다.

3개의 강의 모두 15~20분 정도 되는 강의였지만 강사님께서 설명을 쉽게 해주시고 예시도 잘 들어주셔서 듣는 동안 재밌었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유익한 팁들은 물론 고민하던 것들도 해결하였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나처럼 글쓰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한번쯤 들어 보길 추천한다.